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서문

스코틀랜드 왕국 안의 개신교도들이 고백하고 믿는 신앙고백. 그들이 의회에서 공포하였고, 그 왕국의 신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무오한 진리에 근거한, 유익하고 건전한 교리로서 비준하고 승인한 것.

마 24. 그리고 이 나라의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때에 끝이 오리라.

스코틀랜드의 신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고백하는 그 주민들은, 그들의 본국 동포들과, 그들과 함께 같은 주 예수를 고백하는 다른 모든 왕국과 민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의로운 판단의 영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며 문안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욕과 위험을 당해 온 그 교리의 요체를 세상에 알리기를 오랫동안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진리를 향한 사탄의 격노가 그와 같았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기꺼이 하고자 했던 대로 우리의 양심을 밝힐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유럽의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고난받는 자들이 전적으로 낭패당하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얼마간의 안식과 자유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리의 이 간결하고 평이한 신앙고백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형제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니,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좋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의 악의에 찬 비방으로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대담하게 정죄하는 뻔뻔한 모독자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한 자들의 썩어 버린 악의가 이 단순한 신앙고백으로 고쳐질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복음의 향기로운 냄새가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사망이며 또 사망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형제들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사탄이 우리의 이 지극히 경건한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퍼뜨리는 갖가지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요하거나 휩쓸려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우리의 이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조항이나 문장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의 너그러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글로 권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신의를 걸고 그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곧 그분의 거룩한 성경으로부터) 답변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을 고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양심의 증인으로 모시노니,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이단의 분파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를 혐오하며, 모든 겸손으로 그리스도 복

음의 순수함을 받아들인다. 그 복음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여,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의 극한 위험을 당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버지 앞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임을 우리가 가장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우리 주 예수의 능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조항들과 같은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끝까지 머물기로 굳게 작정한다.

I -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니, *신 6.4. 고전 8.6. 사 44.4, 5. 딤전 1.17. 왕상 8.17. 대하 8 18. 시 139.7, 8. 창 17.1. 딤전 6.15, 16 출 3.14, 15. 마 28.19. 요일 5.7. 창 1.1. 히 11.3. 행 17.28. 잠 16.4.* 우리는 오직 그 분께만 붙어 있어야 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하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이해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나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신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존재가 유지되며,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다스려지고 인도되어,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가 정하신 목적, 곧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른다고 고백하고 믿는다.

II -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우리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곧 *창 1.26, 27.*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여자도 지으셨다)을 등. *골 3.10.*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주권과 의와 자유의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셨으므로, 사람의 본성 전체에서 어떤 불완전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영예와 완전함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타락하였으니, 여자는 *엡 4 24 창 3.6. 창 2.17.* 뱀에게 속았고, 남자는 여자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며,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을 거슬러 공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감히 먹으면 죽으리라고 미리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것이다.

III - 원죄에 관하여

흔히 원죄라 불리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훼손되었고, *시 51.5. 롬 5 10. 롬 7.5. 딤후 2.26. 엡 2.2, 3. 롬 5.14, 12. 롬 6.23. 요 3 5. 롬 5.1. 빌 1.29.* 그와 그의 후손은 본성상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었다. 그리하여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을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죽음이 권세와 지배를 가져왔고 또 가질 것이다. 이 중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유익들과 함께 붙잡는다.

Ⅳ - 약속의 계시에 관하여

우리는 이것을 변함없이 믿는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두렵고 끔찍하게 떠나간 후에, *창 3.15. 창 3.9. 창 12 3. 창 15 5, 6. 삼하 7.14. 사 7.14 사 9 6 학 2.6 요 8.56.*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지극히 기쁜 약속을 주셨으니,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다시 말해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때때로 되풀이되고 더욱 분명해졌으며,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실한 자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변함없이 간직하였다. 그들 모두(곧 신실한 조상들)는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Ⅴ - 교회의 존속과 증가와 보존

겔 6.5, 6.7, 8, 9, 등. 우리는 가장 변함없이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창 12.1. 창 13.1. 출 1.1 출 1.20. 수 1.3. & 23 4 삼상 10.1. 삼상 16 13 삼하 7 12 왕하 17.15, 16,* 등.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고, 가르치시고,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의 고향에서 부르셨고, 그를 가르치셨고,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으며, 그들을 놀랍게 보존하셨고, 더욱 놀랍게 바로의 속박과 폭정에서 건지셨다. 그들에게 그분은 자기의 율법과 규례와 의식들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사사들 이후와 사울 이후에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주셨으며, 그에게 그의 허리의 열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왕좌에 영원히 앉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바로 이 백성에게 그분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우상숭배로 자주 떠나갔던 그들의 하나님의 바른 길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공의를 완고하게 멸시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실 수밖에 없으셨으니, *왕하 24. 3, 4,* 등.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경고하신 대로였고, 그리하여 거룩한 성은 파괴되고, *신 28.36, 38,* 등. 성전은 불에 타고, *왕하 25.1. 단 9 2. 스 1,* 등. *학 1 14. 슥 3.1.* 온 땅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하게 버려졌으나, 그분은 긍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거기서 성과 성전이 재건되었으며, 그들은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머물렀다.

Ⅵ -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에 관하여

때가 차매, *갈 4 4. 눅 1.31. 마 1.18. 마 2.1. 롬 1.3. 마 1.23.* 요 1.2.45. *딤전 2 5.*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곧 자기의 영원한 지혜요 자기 영광의 본체이신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한 여자의 본체에서, 곧 한 동정녀에게서,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다윗의 의로운 후손, 하나님의 큰 경륜의 사자(使者), 약속된 참 메시아로 나셨다.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 참 하나님이

시며 참 사람이시요, 두 완전한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고 결합되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아리우스, 마르키온,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의 저주받을 해로운 이단들과, 그분의 신성의 영원성이나 그분의 인성의 진실성을 부인하거나, 그것들을 혼합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분리하는 그와 같은 다른 자들을 정죄한다.

VII -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한다. *엡 1.3.4, 15, 6.*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이 지극히 놀라운 결합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서 나왔으며, 우리의 구원도 거기서 비롯되고 거기에 달려 있다.

VIII - 선택에 관하여

왜냐하면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엡 1.11. 마 25 34. 엡 1 21, 22. 히 2.7, 8. 시 22.11. 히 13.20. 벧전 2.24.* & 5. 순전한 은혜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를 우리의 머리,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목자, 우리 영혼의 위대한 감독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 사이의 원수 됨이 너무도 커서 어떤 육체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고 이를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시 130.3. 시 143.3. 딤전 2.5.* 우리 몸으로 된 몸, 우리 살 중의 살, 우리 뼈 중의 뼈를 스스로 취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야 했다.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요 20.17.* 그분 자신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바와 같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지극히 거룩한 형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이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과 공통으로 가지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형제로 주셨고, *롬 5.17, 18.19.* 앞에서 말한 대로 그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메시아요 구속자이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했으니, *롬 8.15. 갈 4.6. 행 17.26. 히 2.11, 12. 벧전 3 18. 사 53.8. 행 2.4. 요일 1 2.* 이는 그분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 마땅한 형벌을 받으시고, 자기 아버지의 심판 앞에 자신을 드리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창시자를 이기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만으로는 죽음을 당할 수 없었고, 인성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그분은 이 둘을 한 위격 안에 결합하셨다. *행 20 28. 딤전 3.16. 요 3.16.* 이는 한쪽의 연약함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죽음을 당하고 그것에 굴복하며, 다른 쪽, 곧 신성의 무한하고 무적인 능력이 승리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영원한 승리를 얻어 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같이 고백하며,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다.

IX - 그리스도의 죽으심, 수난, 장사 등

히 10.1, 12. 사 53.5. 히 1 2.3. 요 1.29. 마 26.11. 신 21.23. 막 15.1, 2. 갈 3.13. 눅 23.1, 2. 마 26.38. 고후 5. 히 9 12. 히 10.5.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자원하는 제물로 그의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분은 죄인들의 거역을 견디셨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채찍질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깨끗하고 무죄한 어린양이신 그분은 땅의 재판관 앞에서 정죄를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면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판결로 저주받은)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의 아버지의 진노도 얼마 동안 당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하노니, 그분은 몸과 영혼으로 당하신 그 고뇌와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유일하게 사랑받는 복된 아들로 계셨으며,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속상(贖償)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이 일 후에, 우리는 죄를 위한 다른 제사는 남아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공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영원한 정결케 함과 속상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조금도 주저없이 공언한다.

X - 부활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다. 죽음의 고통이 생명의 창시자를 속박 가운데 붙들어 둘 수 없었으므로, *행 2.23. 행 3.26. 롬 6.5, 11. 행 2.24 롬 4 25. 히 2.14, 15. 마 28 요 20.27* & 21.7.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의 창시자였던 자를 멸하심으로 죽음과 그 속박 아래 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원수들의 증언 자체로 확증되었음을 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로 확증되었으니, *눅 24.41, 42, 43.* 그들의 무덤이 열렸고,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 안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또한 천사들의 증언과, 그분의 부활 후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그분의 사도들과 다른 이들의 감각과 판단으로도 확증되었다. *요 21.12, 13.*

XI - 승천

우리는, *눅 24.51. 행 1.9. 마 28.6. 마 16.9. 눅 24 6. 요 20.9. 마 28 18. 요일 2.1. 딤전 2.5. 시 110 1. 마 22 44. 마 12 36. 눅 20.42.43 행 1.1. 행 3.19. 살전 1.4, 5, 6, 7, 8.*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동일한 몸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거기서 그분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거기서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어, 그분의 나라에서 보좌에 오르셨으며,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 영광과 영예와 특권은 형제들 가운데 그분만이 홀로 가지실 것이니, 그분의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이다. 우리는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그렇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며,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분이 오르시는 것을 본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그때에 새롭게 되는 때와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올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마 25.34. 계 21.27. 사 66.24 마 25.41. 막 9.44, 46, 48* 그리하여 처음부터 의를 위하여 폭력과 해와 부당함을 당해 온 자들은 처음부터 약속된 복된 불멸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완고한 자들, 잔인한 자들, 불순

종하는 자들, 압제자들, 더러운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움의 감옥에 던져질 것이니, *마 22.13. 벧후 3 11. 고후 5.11. 눅 21.28. 요 15.4*, 등. *사 7.14. 엡 1.22. 골 1.18. 히 9.11, 15. 히 10.21. 요 일 2.1. 딤전 2.5.* 거기서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날에 집행될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굴레일 뿐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로가 되어, 세상 군주들의 위협도, 일시적 죽음과 눈앞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지체인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복된 교제를 부인하고 버리도록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약속된 메시아, 교회의 유일한 머리, 우리의 의로운 입법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대언자요 중보자로 고백하고 공언한다. 만일 사람이나 천사가 그분의 영예와 직분들에 감히 끼어들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자들로 여겨 전적으로 증오하고 혐오한다.

XII - 성령을 믿는 믿음

이 우리의 믿음과 그 확신은, *마 16.17. 요 14 26. 요 14.11. 행 5.4. 요 16.13. 골 2.13. 엡 2.1. 요 9.39. 계 3.13.* 혈과 육에서, 곧 우리 안의 어떤 본성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이다. 우리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역사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너무도 죽어 있고, 너무도 비뚤어지고 눈멀어서, 찔려도 느끼지 못하고, 빛이 비쳐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도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 예수의 영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마 17.17. 마 9.19. 눅 9 41. 요 6 63. 미 7.8. 왕상 8.8. 시 100.3. 롬 5.10. 요 3.5. 딛 3.5. 롬 5 8. 빌 3.9. 빌 1.6. 고후 3.5. 엡 1 6.* 우리 지각에서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굽혀 그분의 복된 뜻에 순종하게 하시면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공로도, 그것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이후이든,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고 고백한다. 이 한 가지를 더욱 분명한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모든 영예와 영광을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스스로 한 가지 선한 생각조차 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만이 그분의 과분한 은혜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그 일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신다.

XIII - 선행의 원인

엡 2.10. 빌 2.13. 요 15.5. 롬 8.9.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의 원인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영이심을 고백한다. 그분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예비하신 그러한 선행을 맺게 하신다. 우리는 가장 담대하게 단언하노니, 성화의 영이 전혀 없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자, 압제자, 잔인

한 박해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숭배자, 술 취하는 자, 도둑,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가, 그들이 완고하게 그들의 악 가운데 계속 머무는 동안에는, 참된 믿음도 없고 주 예수에게서 나오는 성화의 영의 어떤 몫도 없다고 단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참된 믿음으로 받는) 주 예수의 영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시자마자, *롬 7.15, 16, 17.* 곧바로 그분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므로, 그는 전에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갈 5.17.*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육과 영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과 자연인은 (그 자신의 부패를 따라) 자기에게 즐겁고 기분 좋은 것들을 탐하고, 역경 속에서는 원망하고, 번영 속에서는 교만해지며, 매 순간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르기 쉽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롬 8 16. 롬 7.24. 롬 8 22. 엡 4.17, 18, 19.*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쾌락을 혐오하며, 이 부패의 속박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마침내 죄를 이겨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이 싸움이 없고, *딤후 2.26.* 마귀와 그들의 부패한 정욕이 그들을 충동하는 대로 탐욕스럽게, 회개 없이 죄를 따르고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며, 자기들이 불법으로 유혹받는 것을 깨달을 때 흐느끼고 슬퍼하며, 만일 넘어지면 진지하고 거짓 없는 회개로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신다. *요 15 5.*

XIV -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 *출 20.3,* 등. *신 4.7,* 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으니, 그 안에는 그분의 거룩한 위엄을 불쾌하게 하고 거스르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행위가 명령되어 있다. 그리고 이 행위들은 두 종류이니,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눅 1.75. 미 6.7.*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그 보증으로 가진다. 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을 부르는 것,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분의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첫째 돌판의 행위들이다. *엡 6.17. 겔 22.1,* 등. *고전 6.19, 20 살전 4.4, 5, 6 렘 22.3 9 9,* 등. 아버지와 어머니, 군주들, 통치자들, 그리고 윗사람의 권세들을 공경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무죄한 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 폭정을 억누르는 것, 억압받는 자를 변호하는 것,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사 50.1,* 등. *살전 4 6. 롬 13.2. 겔 22.13. 요일 3 4.* 절제와 절도 가운데 사는 것, 말과 행실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해치려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둘째 돌판의 선행이며, 이 행위들은 하나님 자신이 명령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가장 기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가장 가증한 죄로서, 언제나 그분을 불쾌하게 하고 진노케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오직 그분만을 부르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지 않는 것, 그것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우상을 가지거나 섬기는 것, 우상숭배를 유지하고 옹호하

는 것,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를 더럽히거나 남용하거나 멸시하는 것, *롬 14.23.* 하나님께서 권위에 세우신 자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직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불순종하거나 저항하는 것, 살인하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것, *히 11.6.* 미움을 품는 것, 또는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것을 *삼상 15.22.*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돌판이나 둘째 돌판의 다른 어떤 계명을 범하는 것도 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단언하니, *고전 10.31.* 이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타오른다. *요일 3.4.*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이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것들뿐이라고 단언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표현하셨다. *사 29.13.* 그리고 악한 행위란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거슬러 행해진 것들뿐 아니라, *마 15.9.* 종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고안과 견해 외에는 아무 보증이 없는 것들도 그러하다고 우리는 단언한다. *막 7.7.*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언제나 거부하셨으니,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와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말씀으로 배우는 바와 같다.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XV - 율법의 완전함과 사람의 불완전함

레 18.5. 갈 3.12. 딤전 1.8. 롬 7.12. 시 19.7, 8, 9. 신 5.29. 롬 10.3. 왕상 8.46. 대하 6.36. 전 7.22. 잠 20.9. 요일 1.8. 요 1.18. 롬 10.4. 갈 3 13. 신 27.26. 빌 2.15. 사 64.6. 눅 17.10.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율법은 완전하게 행해지면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람을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약하고 불완전하여, 우리는 결코 율법의 행위들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 참으로 만일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의와 속상과 함께 붙잡아야 한다. 그분은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요 성취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유를 얻어, 비록 우리가 모든 점에서 율법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벌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마치 완전한 것처럼 받으시며, 많은 얼룩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행위를 그의 아들의 의로 덮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율법에 아무 순종도 빚지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고백하였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단언한다. 땅 위의 어떤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을 행위로 드린 적이 없고, 드리지 않으며, 드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우리는 엎드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거짓 없이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여공(餘功)의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자랑하고 저주받을 우상숭배를 신뢰하는 것이다.

XVI -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한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가장 간절히 믿는다. *마 28.20.*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엡 1.4. 골 1.18.*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교회란 곧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무리와 회중이니,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받아들인다. *엡 5.23, 24, 25, 26.*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신부이다. 이 교회는 공교회, 곧 보편적 교회이니, 이는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왕국과 민족과 언어의 택함 받은 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교통 곧 교제를 가지니, *계 7.8.* 그분의 성령의 성화를 통하여서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속된 자들의 교통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이라 불린다. *엡 2.19.* 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가장 헤아릴 수 없는 유익들을 누리니, 곧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한 믿음, 한 세례이다. 이 교회 밖에는 생명도 영원한 복락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를 고백하였든지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자들의 모독을 전적으로 혐오한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자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교리를 공언하고 *요 5.24. 요 17.6. 딤후 2.19 요 13.14. 엡 1.10. 골 1.10. 히 12.4.* 그분을 믿는 자들(우리는 신실한 부모와 함께 그 자녀들도 포함한다)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으니, 오직 그분만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아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떠난 택함 받은 자들(흔히 승리한 교회라 불린다)과, 아직 살아서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자들과, 앞으로 살게 될 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XVII - 영혼의 불멸

떠나간 택함 받은 자들은 평안 가운데 있으며 *계 14.13. 사 25. 8. 계 7.16, 17. 계 21.4. 계 16.10, 11 사 66.24. 막 9.44, 46, 48.*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다. 이는 (어떤 공상적인 머리들이 단언하듯이) 그들이 잠들어 어떤 망각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생애에서 매여 있으며, 그러므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다. 반대로 떠나간 버림받은 자들과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눅 23.43. 눅 16.24, 25.*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그러므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유와, 강도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과, *계 6.9, 10.*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이 말, 곧 "의롭고 공의로우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갚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가 분명히 증언하는 바와 같다.

XVIII - 참 교회를 거짓 교회와 분별하는 표지들에 관하여, 그리고 누가 교리의 재판관이 될 것인가

사탄은 처음부터 그의 해로운 회당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칭호로 꾸미려고 애써 왔고, *창 4.8. 창 21.9. 창 27.41. 마 23.34. 요 15.18, 19.* 잔인한 살인자들의 마음을 불붙여 참 교회와 그 지체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해치게 하였으니, 가인이 아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온 제사장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요 11 35. 요 15.20, 24.* 그 후의 그분의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참 교회를 더러운 회당과 분명하고 완전한 표지들로 분별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니, *행 4.1*, 등. *행 5.17*, 등. *창 4 1. 시 48.1, 2.* 이는 우리가 속아서 하나를 다른 하나로 여겨 받아들이고 붙잡음으로 우리 자신의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흠 없는 신부를 끔찍한 음녀, 곧 악한 교회와 구별하게 하는 표지와 징표와 확실한 증표는, *마 5.35. 요 12.42. 엡 2.20. 행 2.42.* 오래됨도, 찬탈한 칭호도, 혈통의 계승도, 지정된 장소도, 어떤 오류를 승인하는 사람들의 수효도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왜냐하면 가인은 나이와 칭호에 있어서 아벨과 셋보다 앞섰고, 예루살렘은 땅의 모든 장소보다 특권을 가졌으며, *요 10, 27.* 거기에는 또한 아론에게서 혈통으로 내려온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교리를 거짓 없이 믿고 인정한 자들보다 더 많은 무리가 서기관들과 *요 18.37.*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고전 1 13.*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앞에 언급한 자들 중 어느 쪽이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교회의 표지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설교임을 믿고 고백하고 공언한다. *고전 11.20, 23.*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마 28 19 20 막 16.15. 롬 4 11. 마 18 20. 고전 1.2. 고후 1.1. 갈 1 2. 엡 1 1. 행 16.9, 10.18.*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의 바른 집행이니,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결부되어야 하니, 이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고 확증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의 권징이니, 이로써 악은 억제되고 덕은 길러진다. 그러므로 이 앞의 표지들이 보이고 어느 때든지 계속되는 곳이면 어디든지(그 수가 두세 명보다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있으니, 그분은 그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고전 1.* 등. *행 20.17*, 등. *요 20.31. 딤후 3 16 17 벧후 1 20, 21.*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저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개별 교회이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심은 다른 곳들에 있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들이라 불렀던 그러한 교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스코틀랜드 왕국의 주민들은 우리의 도시와 읍과 개혁된 지역들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약과 구약의 책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로부터 정경으로 여겨져 온 그 책들이며, 그 안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는 단언한다. *요 5 29.* 우리는 그 해석이 어떤 사적인 인물에게도 공적인 인물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또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가진 인적 혹은 장소적 우월이나 특권 때문에 그 교회에게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께 속한다고 고백한다. *엡 4 4* 성경도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문장의 바른 이해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안의 어떤 폐습의 개혁에 관하여 논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였는가보다는, 성령께서 성경의 본문 전체 안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행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됨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어떤 일에서도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박사나 교회나 공의회의 해석이나 결정이나 판결이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어긋난다면, 비록 공의회들과 왕국들과 민족들이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참된 이해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주요한 항목이나, 성경의 다른 어떤 분명한 본문이나, 또는 사랑의 규칙에 반대되는 어떤 해석도 감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XIX - 성경의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딤후 3.16, 17* 우리는 또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람에게도 천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 외에는 아무 권위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참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고 단언한다. 참 교회는 언제나 자기 신랑이요 목자이신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요 10.27.* 그 위에 주인 노릇 하려 들지 않는다.

XX - 공의회들과 그 권세와 권위와 소집 이유에 관하여

우리는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의회에 함께 모인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경솔하게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갈 2.11, 12, 13, 14.* 또한 공의회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검토 없이 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딤전 4.1, 2, 3. 골 2.18, 19, 20, 21, 22, 23.*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었으므로, 그들 중 어떤 공의회들은 명백히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것도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그러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의회가 그 내리는 결정과 명령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증명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공의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 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규례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행 15.1,* 등.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끌어내어 사람의 교리와 규례를 따르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여겨 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의회들이 소집된 이유는, *딤전 3.15. 히 3.2. 고전 14.40.* (하나님께서 전에 만들지 않으신) 어떤 영구적인 법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 내기 위함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도 아니고, 더구나 전에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표현되지 않았던 것을 그분의 말씀이나 그 참된 해석으로 만들기 위함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공의회들(곧 공의회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공의회들)의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단들을 논박하고, 뒤따르는 후손들에게 그들 신앙의 공적 고백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행하였지, 그들이 전체 회의로 모였다는 이유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어떤 견해나 특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공의회들의 주된 이유였다고 판단한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좋은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하나님의 집에서처럼)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의 제도와 의식상의 하나의 질서가 모든 시대와 때와 장소를 위하여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고안한 것과 같은) 의식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미신을 조장할 때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또 변경되어야 한다.

XXI - 성례에 관하여

율법 아래의 조상들이 *창 17.10. 출 12.32. 창 17.4. 민 9.13.* 제사들의 실체 외에 두 가지 주요한 성례, 곧

할례와 유월절을 가졌고, 그것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주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그분의 몸의 지체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오직 두 가지 주요한 성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곧 *마 28.19. 막 16.17. 마 26.26. 막 14.22. 눅 22.19. 고전 11.24.* & 10.16. 세례와, 그분의 몸과 피의 교통이라 불리는 주 예수의 만찬 또는 식탁이다. 그리고 이 성례들은 (구약의 것이나 신약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 단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사이에 보이는 구별을 두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누리는 지극히 복된 결합과 연합과 교제에 대한 확신을 인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례가 벌거벗은 헛된 표호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자들의 허망함을 전적으로 정죄한다. *롬 6.3, 4, 5. 갈 3.27.*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이고 사함 받는다고 확실히 믿는다. 또한 바르게 사용되는 만찬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이같이 결합되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영양과 양식이 되신다고 믿는다. 이는 (교황주의자들이 해롭게 가르치고 저주받게 믿어 온 것처럼) 떡이 그리스도의 본래의 몸으로, 포도주가 그분의 본래의 피로 화체된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례의 바른 사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와 누리는 이 연합과 교통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니, 성령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보이는 모든 것, *막 16.19. 눅 24.51. 행 1.11. 행 3.21. 고전 10,* 등. 육적인 것, 땅의 것 위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찢기시고 흘리신,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신 그분의 몸과 지금 이 땅에서 죽을 몸으로 있는 우리 사이의 먼 장소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요, 우리가 축복하는 잔은 그분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가장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주의 식탁을 바르게 사용할 때, *엡 5.30. 마 27.50. 막 15.37. 눅 23.46. 요 19.30.* & 6.51, 53, 54, 55, 56, 57, 58. 주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이 그들 안에,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며 의심 없이 믿는다. 참으로 그들은 이같이 그분의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가 되므로, 영원한 신성이 (그 자체의 조건과 본성으로는 죽을 수 있고 썩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에 생명과 불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도 우리에게 같은 특권들을 준다. 비록 이것이 그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성례만의 고유한 능력과 효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식탁을 바르게 사용하는 신실한 자는 자연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합을 그리스도 예수와 가진다고 단언한다. 참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비록 신실한 자가 부주의와 인간적 연약함에 눌려 만찬의 바로 그 순간의 행위에서 원하는 만큼 유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살아 있는 씨처럼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바른 제정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령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서 그 신비한 행위의 열매를 빼앗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건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성례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성례를 오직 벌거벗은 헛된 표호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거나 믿는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는 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며 명백한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니,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본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성례적

표호들에 있는 요소들을 구별한다. *고전 11.28, 29.* 그러므로 우리는 표호들을 그것들이 표시하는 것 대신에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것들을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멸시하거나 해석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핀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의 입을 통하여, 합당하지 않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은 주 예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XXII - 성례의 올바른 집행에 관하여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그들이 오직 말씀의 설교를 위하여 임명된 자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어떤 권면의 말씀을 두신 자들이며, 어떤 교회에 의해 그 일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단언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요소들로,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바른 성례이기를 그친다고 우리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주의 교회와의 교제, 곧 그들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피한다. 첫째로, 그들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며, (참으로 *마 26.26, 등 막 14.22, 등 눅 22.19, 등 고전 11.24.*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은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이 성례와 저 성례를 모두 그들 자신의 고안물로 너무도 더럽혀서, 그리스도의 행위의 어느 부분도 본래의 순수함 가운데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에서의 기름, 소금, 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고안물에 불과하며, 떡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거리와 읍으로 들고 다니고 상자에 보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례를 더럽히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받아 먹으라, 등.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명령으로 그분은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는 먹고, 다른 하나는 모두가 마시게 하려는 것이지, 눈먼 교황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그것들을 보관하여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성례의 한 부분, 곧 복된 잔을 백성에게서 훔침으로써 성물 모독죄를 범하였다. 더욱이, 성례가 바르게 사용되려면 성례가 제정된 목적과 이유를 사역자와 받는 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받는 자에게서 그 견해가 바뀌면 바른 사용은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제사들이 거부된 것을 보면 가장 분명하니 (교사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제사들은 (비록 하나님 자신의 규례였지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다른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증하고 역겨운 것이 되었다. 우리는 교황주의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단언하니, 우리는 거기서 주 예수의 행위 전체가 외적 형식에 있어서나 목적과 견해에 있어서나 더럽혀졌다고 단언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주목.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는 성례에 대하여 말하는 세 복음서 기자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분명하다. 사제가 그의 제단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가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제정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왜 바로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5,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곧 높이며, 전파하며, 크게 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제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견해

로 그들의 미사를 드리는지는 바로 그들 자신의 박사들과 저술들의 말이 증언하게 하라. 곧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중보자들로서, *히 9.27, 28*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이 교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될 모든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단 한 번 드려진 그분의 유일한 제사의 충족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 전적으로 혐오하고 증오하며 배격한다.

XXIII - 성례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골 2.11, 12 우리는 세례가 나이가 차고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자들의 유아들에게도 속한다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롬 4.11. 창 17.10. 마 28.19.*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과 이해를 갖기 전에는 세례가 그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재세례파의 오류를 정죄한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오직 믿음의 가정에 속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나 이웃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나 자신을 시험하고 살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속한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믿음 없이, *고전 11.28, 29.* 또는 형제들과 불화하고 분열된 채로 그 거룩한 식탁에서 먹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에서는 사역자들이 주 예수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을 자들의 지식과 행실을 공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XXIV -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롬 13.1. 딛 3.1. 벧전 2.13. 우리는 제국들, 왕국들, 영지들, 그리고 도시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정해졌으며, 그 안의 권세와 권위들은 (제국에서의 황제들의 것이든, 왕국에서의 왕들의 것이든, 영지에서의 공작들과 군주들의 것이든, 자유 도시에서의 다른 위정자들의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로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인류의 특별한 유익과 편익을 위하여 정해진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롬 1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오랫동안 확립된 국가 제도들의 전체 상태를 없애거나 혼란케 하려고 하는 자는, 인류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슬러 악하게 싸우는 자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롬 13.7.* 우리는 더 나아가, 권위에 세워진 자들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가장 경외하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며, 그들의 재판석에 하나님 자신이 앉아 재판하시기 때문이다(참으로 *벧전 2.17. 시 82.1.* 재판관들과 군주들 자신까지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을 주셨으니,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호하며, 모든 공공연한 악행자들에게 보응하고 벌하게 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왕들과 군주들과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종교의 보존과 정화가 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속한다고 우리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 제도를 위해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 종교를 유지하고 모든 우상숭배와 미신을 억누르기 위해서도 세워졌으니, 대상 22, 23, 24, 25, 26장. 대하 29, 30, 31장. *대하 34* & 35장. 이 일에 대한 열심으로 높이 칭찬받은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서 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직무에 속한 일을 행하는) 최고 권세에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저항하는 것이며, 따라서 죄가 없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공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군주들과 통치자들이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지런히 수고하는 동안 그들에게 도움과 조언과 격려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대리자

의 임재를 통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도움과 지원과 조언을 거부하는 자라고 단언한다.

XXV - 교회에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

비록 참되게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는 권징이 참 교회의 확실하고 틀림없는 표지이지만, *마 13.24, 25, 26,* 등. 우리는 그러한 무리에 결합된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 받은 지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보리와 가라지와 쭉정이가 뿌려져 크게 번성하고 알곡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마 13 20, 21* 곧 버림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의 교제에 결합될 수 있고, 외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말씀과 성례의 유익을 사용할 수 있다. *롬 10.9, 13.*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만 잠시 고백하는 자들이므로, 뒤로 물러나고 끝까지 계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열매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담대히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은 이 선물들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롬 7,* 등. *고후 5.21.* 첫째로, 이 생애에서 죄 사함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으니, 비록 죄가 이 죽을 몸에 남아 계속 머물러 있을지라도 *요 5.28, 29. 계 20.13.* 욥 19.25, 26, 27.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다. 둘째로,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육체의 부활이 주어질 것이다. 바다가 그 안의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땅이 그 안에 갇힌 자들을 내어 줄 것이다. 참으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티끌 위에 그분의 손을 펴실 것이며, *마 25 31. 계 14.10.*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날 것이니, 그것도 각 사람이 지금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육체의 본체로 일어나 그들의 행위에 따라 영광이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허영과 *롬 2.7, 8, 9, 10.* 잔인함과 더러움과 미신이나 우상숭배를 즐기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처해질 것이니, *빌 3 21. 고전 15.28.* 그 안에서 그들은 지금 모든 가증한 일로 마귀를 섬기는 데 내어준 그들의 몸과 영혼에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며 담대히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은 영광과 영예와 불멸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것임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는다.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나타나시고 나라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 그분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분의 영화롭게 된 몸과 같이 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이며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니,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성자와 성령과 함께 그분께 모든 영예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여,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참되게 아는 데 이르게 하소서.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